

전남새농민회, 귀농인 멘토링 결연식



전남새농민회(회장 박규원)는 최근 영암읍 소재 전남친환경농업영양교육관에서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전남새농민회·귀농인 멘토링 결연식'을 가졌다. (전남농협제공)

전남우정청 '복지허브를 말한다!' 합동 토론회



전남지방우정청(청장 김병수)은 최근 우정청에서 광주·전남 각 시·군 지자체, 사회복지단체, 대학교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우체국 : 복지허브(Welfare Hub)를 말한다!'를 주제로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정필기자 halo@kwangju.co.kr

호남대-도교육청 섬 어린이 초청 행사



호남대학교와 전남도교육청 초청으로 광주를 방문한 울릉도·가거도·흑산도 어린이 100명이 최근 호남대 IT스퀘어 광장에서 패션쇼·콘서트 프로그램을 통해 제작한 독도 티셔츠를 입고 '독도는 우리 땅'을 외치며 나라사랑 의지를 다졌다. (호남대학교 제공)

농협썬샤인 봉사대, 광양지역 주거 개선



광양 관내 농협으로 구성된 농협썬샤인 봉사대가 최근 지역 영세농가를 대상으로 '행복나눔 주거환경 개선'에 나서 집안 청소와 도배, 장판 교체, 담배턱 페인트 칠하기 등을 도왔다. /광양=박정필기자 py4079@kwangju.co.kr

# “닭이 행복해야 달걀도 맛있다는게 철학이죠”

## 전남 첫 동물복지 자유방목 인증 다슬농장 민석기 대표

붉은 벼를 뜻하는 세운 수탉 두 마리가 매섭게 노려보며 기싸움을 한다. 깃털을 곧추 세우더니 이내 서로를 향해 날아오른다. 몇 차례 싸움 끝에 밀린 녀석이 공포미를 보이면서 이긴 수탉이 기세 등등하게 앞쪽에 다가간다. 화순군 남면에 있는 다슬농장은 흔히 볼 수 있는 양계장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닭 공원 같네요.” 다슬농장 사육환경을 둘러 본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관계자의 말이다. 민석기(56)대표의 양계장에 있는 닭 7000여마리는 실내에서 물과 모이를 먹으며, 방사장 흙을 파고 잔나 치며 자유롭게 움직인다. 좁은 케이지에 갇혀 기계적으로 알만 낳는 닭과는 달리 걸모습도 움직임도 건강해 보였다.

“집에서 키우기 때문에 가족(家禽)이라고 부르잖아요. 닭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달걀도 맛있다는게 철학이죠.”

다슬농장은 지난 2012년 8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부터 동물복지 자유방목 인증을 받았다. 전남에서 최초다. 동물복지 자유방목 인증은 국가가 농장의 햇빛, 사육밀도, 환기, 활동공간 등을 검사해 공인하는 제도로 친환경 농장 인증보다 훨씬

엄격해 심사를 거친다.

1만5000㎡ 축구장 2개 크기의 넓은 부지에 7000여 마리가 매일 4500여개의 달걀을 낳는다. 모두 유정란으로 일반 달걀이 150원 선에 거래되는 것에 비해 3배 정도 높은 420원에 거래된다.

엔지니어로 일하던 민 대표는 지난 2000년 귀촌했다. 농촌에서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던 그는 ‘가족이 원래 습성대로 건강히 살면서 사람도 행복한 양계장’이라는 원칙에서 출발했다. 가족을 키워 본 적도, 동물에 대한 특별한 지식도 없이 500마리로 시작해 시행착오도 많았다. 방사장에 닭을 풀어 놓고 키우니 달걀을 수거하는 시간도 훨씬 오래 걸리고 생산량도 높지 않았다. 고된 시간이었지만 가족은 주인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믿음으로 밤낮 없이 노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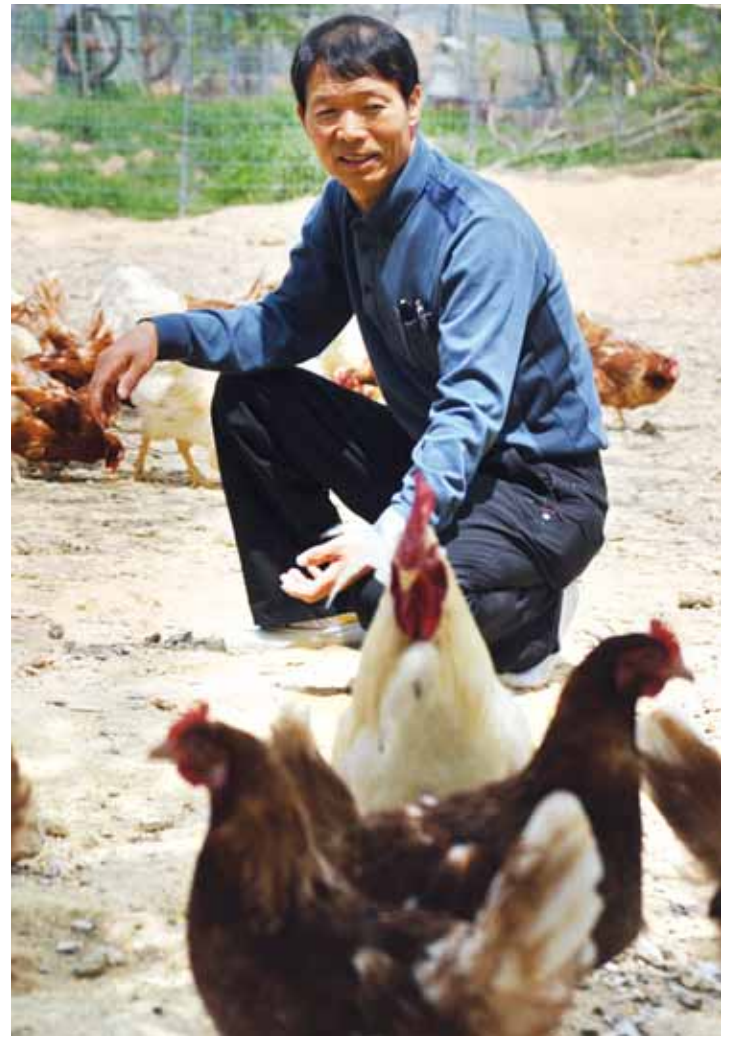
“닭은 습관의 동물로 처음 알을 낳은 장소에서 계속 낳아요. 산란장 온도, 습도, 높이 같은 환경을 암탉이 가장 좋아하는 최적으로 만들어 그곳에서 달걀을 낳게 만들었어요.”

달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기공이 있기 때문에 습기가 많은 곳에 노출될 경우 쉽게 부패한다. 닭을 방목하지만 달걀은 건

조하고 위생적인 시설을 갖춘 실내 산란장에서만 낳게 하는 이유다. 한생제는 쓰지 않는다. 대신 사료에 홍삼과 인삼을 넣고 직접 기른 오가피나무를 베어 달인 물을 닭에게 주고 있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다슬농장은 닭이 건강하고 달걀이 맛있다는 소문이 전국적으로 알려졌다. 이제 양계장에는 달걀을 사기 위해 직접 찾아 온 소비자, 체험학습을 위한 학생까지 다양한 손님이 방문한다. 양계장은 악취와 소음 때문에 혐오시설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지만 다슬농장은 냄새가 거의 나지 않는다. 유익한 미생물을 바닥에 뿌려 닭 배설물이 금방 발효·분해되기 때문이다. 친환경 동물복지 환경이 알려지면서 전국에서 주문 요청이 쇄도한다. 지난 3월부터는 일반 가정에 판매하기 위해 60개씩 소량 판매도 시작했다. 폐사한 닭을 환경에 무해하게 처리하려고 사체 처리기까지 설치한 그는 최고의 환경을 자부했다.

“소비자가 일반 달걀보다 더 좋은 맛과 품질을 기대하고 더 많은 돈을 내는 만큼, 앞으로도 꾸준한 시설을 개선하고 기술을 발전시킬 생각입니다” /화순=글 사진 양세열기자 hot@



# 음식으로 情 나누고 요리 배우며 시름 잊고

## 첨단우암병원, 전통요리연구가 초청 요리강좌

“남도 음식 만들기가 이렇게 재미있을 줄 몰랐어요.”

우암의료재단 첨단우암병원(이사장 조성범)은 최근 남도전통음식문화재 전수자 김영숙 요리연구가를 초빙, 입원 환자 가족 및 병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요리강좌를 실시했다. 우암의료재단은 매일 2~3차례 한국전통 요리강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입원 환자 보호자 등 30여명이 참가한 이번 강좌는 조미·볶음 초류, 장아찌, 갈비찜 등 실생활 응용이 가능한 생활요리와 웰빙음식이 소개됐다.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병원생활 3년째

라는 주부 김모(47)씨는 “반복되는 병원 생활에 지친 마음을 달랠 수 있어 좋고, 직접 만든 요리를 남편과 병실 환자들과 나눌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우암의료재단 조성범 이사장은 “항상 힘들게 병원 생활을 하는 환자 가족이나 간호사들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한국전통요리를 체험하며 짧은 시간이나마 즐겁게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강좌를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암의료재단은 이주여성 대상 특별 강좌 등 요리강좌를 확대해 계획이다. /채희종기자 chae@

## 베컴, 은퇴 경기서 뜨거운 눈물

잉글랜드 축구 스타 데이비드 베컴(38·파리 생제르맹)이 은퇴 경기에서 끝내 눈물을 터뜨렸다. 베컴은 19일(이하 한국시각)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데프랑스 경기장에서 열린 2012~2013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1 37라운드 브레스트와의 경기에 선발출전했다.

이날 경기는 베컴의 마지막 경기였다. 베컴은 주장 완장을 차고 선발로 그라운드를 밟았다.

그는 전반 31분 코너킥으로 블레이크 마투이디의 득점에 도움을 기록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선보이다 후반 37분 에세키엘 라베치와 교체됐다. /연합뉴스



##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84 FAX 062-222-4938, 222-4918

### 화족

▲장호직(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광역시회 회장·삼호의료재단 이사장)·신복순씨 장남 병웅군 김병문(시운전력(주) 대표이사)·주청후씨 장녀 주리양=25일(토) 오후 5시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3층 컨벤션홀. ▲박춘금(장흥 법무사)씨 장남 성창군 박성남씨 장녀 서희양=26일(일) 오후 1시 30분 광주 홀리데이인 호텔 2층 라벤더홀. ▲김한중·김순명씨 아들 창호(옥과농협)·홍기출·김선자씨 딸 지양(엠코 코리아)양=26일(일) 오후 2시 상무 예술의전당 1층 제2아트홀.

### 종친회

▲(사)전주리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 지원 서구본원 정기총회=25일(토) 오전 11시 도지연 회의실 3층 이찬병원장 010-5060-4661. ▲경주배씨 달성판서공파(彦포는

均·판밀직·원수) 전국 대회(회장 배상민) 총양 대재=26일(일) 오전 11시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 1090번 구천서당(송덕묘(崇德廟)) 010-2345-6546.

###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 사용시 062-1366. ▲책임음주를 통한 행복한 가정 만들기 프로젝트 '한술(부부)을 일컫는 술 우리말' 절주학당=6월 13일~7월 25일(총 7회·매주 목요일 오후 7시30분~9시)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구)연합알코올상담센터 062-526-3370, 510-3370. ▲광주시 동구지역 1인가구원 정신건강 실태조사 보고회=22일(수) 오후 4시~6시 광주동구청 6층 대회의실, 광주동구정신건강증진센터 062-233-0468. ▲6월 전문가초청 공개강좌 “우리

가족 인터넷 사용! 심각한 수준일까?”=6월 1일(토) 오전 10시 30분~12시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062-526-3370. ▲유학허브 해외어학연수설명회(미국·영국·필리핀)=24일(금) 오후 2시 광주 롯데백화점 문화센터(예약 필수 선착순마감) 062-263-3434.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산청소년지리생활관 호남지역 가을 및 위기 청소년보호시설=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지원, 수시 입소가능, 12~22세 남자. 062-953-6101. ▲북부비만, 피부관리 셀프무료 체험=광주시 북구 우산동 말바우 시장 보광 한의원 3층 나비엘 우산갤러리. 062-261-5875, 011-9614-3348. ▲대한노인회 광주 취업지원센터 일자리 안내=광주시에 거주하는 심신 건강인 60세 이상 노인(주민등록증 지참) 동구센터 062-223-8324, 서구센터 062-431-4529, 남구센터 062-432-0947, 북구센터 062-433-6050, 광산구센터 062-942-0204.

▲광주 여성의 전화 무료 상담 및 법률·의료비 지원=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직장내 성차별, 이주여성문제. 상담 062-363-0442~3.

### 모집

▲영자신문 TIMES 회원=영자신문으로 보고 원어문이 들려주는 생생한 영어뉴스(타임즈, 킨더타임즈, 키즈타임즈) TIMES CORE 광주전남교육센터 010-7777-3235. ▲광주전남불교신도회 합창단=불교합창단 창단에 앞서 합창단원으로 활동할 불자를 모집. 노래를 좋아하는 불자(55세 이하) 무각사 내 불교회관 2층 법당 062-385-1336. ▲안전모니터봉사단 자원봉사자=재난안전사고 예방신고, 제보활동 안전전주주의, 안전불감증 등 국민의식개선에 대한 홍보등의 활동을 할 자원봉사자를 모집(광주시민누구나 가능)(사)전국안전모니터봉사단 광주광역시지회 062-514-2929.

## “청소년 고민 무릎팍에 물어봐”

### 광산경찰, 찾아가는 상담소 운영

광주 광산경찰이 청소년의 고민을 들어주는 이색상담소를 운영해 눈길을 끌고 있다. 광산경찰은 진로상담, 학교폭력, 비행청소년 선도를 위한 ‘무릎팍 상담소’를 열었다. 상담소는 청소년 왕래가 잦은 장소를 찾아 이동상담이 가능하도록 승합차량 내에 상담 테이블을 마련해 현장에서 바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게 했다. 차량에는 학생들이 편안한 마음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음료와 별도의 선물을 비치했다.

지난 10일 광산구 송정동 명동거리에서 청소년들의 다양한 고민을 듣고 제안을 제시해 호평을 받았다. 이날 상담에서 서모(18·광주여고)양은 “여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며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경찰시험을 볼 수 있느냐”는 질문 등 평소 관심 분야에 대해 물었다. 김모(17·광주전자고)군도 학생들끼리 싸움을 하느라 서로 말다툼하고 폭력 건드리는데 이런 건도 학교폭력이 되는지 여부를 묻는 등 상담이 쇄도했다. /최승렬기자 srchoi@

## 조선대 병원 안과 심포지엄 성료

조선대학교 병원(병원장 민영돈) 임상석학연구소와 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안과학교실(과장 고재웅)이 공동 주최한 ‘2013 조선 안과 심포지엄’이 지난 17일 조선대학교 해오름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국제심포지엄 행사에는 오사카 대학, 필리핀 대학, UCLA, 서울대 의대, 연세대 의대, 성균관 의대, 가톨릭 의대, 전남대 의대 교수와 세계적인 석학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올해 13회 조선 안과 심포지엄의 주제는 ‘외안부의 연구, 질환, 수술의 최신 지견’으로 국내 및 해외 전문가들이 각막의 구조와 영상학적 진단기법, 감염성 각막질환, 각막이식수술에 대한 최신 지견과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토의했다.

회장 고재웅 교수는 “오늘이 자리가 세계 석학들과 만남의 자리로서 국제적인 심포지엄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

### 부음

▲이영익씨 별세 김영국(조선대학교)·영순·순자씨 모친상 정은희(동성중학교)씨 시모상=발인 21일(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2분향소 062-231-8902. ▲정선채씨 별세 현천·형주·형관·희순씨 부친상=발인 21일(화) 무등장례식장 203호 062-515-4488. ▲고소식씨 별세 나중주·중호·중수·중환·경순·경숙·경희씨 모친상=발인 20일(월) 무등장례식장 102호 062-515-4488.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b>故양대승(남/64세)</b> 子/子輝·양동중/양은혜 女/瑞·양연희/조희진, 유리/강성연 喪: 인자수 안나/윤연일	<b>故안중윤(남/79세)</b> 子/子福·인희순/김숙자/승순/인희중/주: 구경호·대호 女/瑞·인희순/김숙자/승순/인희중/주: 구경호·대호 喪: 인자수	<b>故구희년(남/62세)</b> 子: 구경호·대호 女/瑞: 구선형/김성철 喪: 인자수
---	---	---

• 호 실: 201호  
• 발 인: 5월 20일  
• 장 지: 영락공원  
• 연락처: 227-4381

• 호 실: 301호  
• 발 인: 5월 21일  
• 장 지: 영락공원  
• 연락처: 227-4382

• 호 실: 402호  
• 발 인: 5월 20일  
• 장 지: 영락공원  
• 연락처: 227-4314

**孝 金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